

우리나라 자원식물

글·사진_강병화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우리 나라 자원식물 748초종의 종자와 560초종의 생태사진 전시회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전시장(지하 1층)에서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야생초본식물자원종자은행(강병화 :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책임자인 강병화(姜炳華)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들과 산으로 직접 다니며 식물을 조사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으로, 관련된 생태사진 2천300여장이 전시된다.

1999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특수 연구소재은행으로 지정된 후 4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채종으로 야생초본식물자원종자은행은 현재 110과 1천401초종 5천958 수집종을 확보하여 필요한 연구자에게 분양하거나 채종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나라 식물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



카시연꽃



금강초롱



산로귀

며, 야생초본식물 전체를 대상으로 종자를 수집하여 분양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야생초본식물자원종자은행은 미래의 자원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보존 차원에서 우리 나라 초본자원식물의 유전자원인 종자 확보와 실험재료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1) 우리나라 야생초본식물의 종자를 수집하고 2) 수집한 종자를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며 3)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식물종자를 수집하여 유전자원 확보의 차원에서 영구히 보존시키고 4) 야생식물을 연구재료로 이용하는 연구자에게 정확한 종의 동정과 채종정보에 대한 자료를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야생초본식물자원종자은행을 찾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초등학생들이 본 은행에 게시된 생육시기별 생태사진을 보고 본격적인 전시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약 10개월의 준비 끝에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 작물재배학을 전공한 다음 독일에서 5년간 잡초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고려대에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식물에 관한 강의를 하는 한편 직접 산과 들에서 2천600여 일 동안 식물을 조사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연구한 강 교수의 연구 결과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물자원의 분석과 이용측면은 많은 기술 축적이 되어있으나 재료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중인 실정이다. 식물 유전자원의 종자확보는 모든 식물자원의 응용분야에 있어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식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연꽃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생태사진 전시는 전시장의 규모 때문에 이 은행의 소장 자료의 40% 정도밖에 전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학생과 일반인들의 관람이 예상된다. 또한 전시회를 통

하여 일반국민과 학생들에게 자연과학과 식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우리 나라의 자원식물을 알리고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이공계 기피현상'



자귀꽃



말나리



히아신스

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고려대 개교 100주년과 생명환경과학대학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의미있는 자리로서 22일의 개최식에는 관련 학계 및 후원기관 등의 고위인사들이 다수 참석

하여 성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하는 우리나라 자원식물 748여 초종의 종자와 560초종의 생태사진과,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300쪽 분량의 도록과 100쪽 분량의 책자를 발간, 전시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엘레지



패모



청붓꽃
앵초





수선화
땅나리





조개나물
인삼





은방울꽃

인동덩굴

